

# 경찰국·검찰인사·어민복송·사적채용 날선 공방

## 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

여, 문 정부 대북·안보정책 저격야, 윤 정부 인사 난맥상 맹공  
검찰 인사 박법계·한동훈 격돌

여야는 25일 국회·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탈북어민 복송 사건 등을 놓고 불꽃튀는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첫번째 대정부질문이다. 정권교체를 공수할 교대한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복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또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조직 내 반발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경찰 통제' 프레임에도 방어막을 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찰인사 등을 고리로 국정운영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도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 **문** "문정부 대북·외교·안보 정책은 궤도 이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안보 정책은 궤도를 많이 이탈했다"며 "한미관계는 크게 훼손되고 대북·대중관계는 저자세로 일관해 왔으며, 대일관계는 파란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복송 사건에 대한 평가', '강제복송의 결정 주체' 등 질문을 던졌다.

권 장관은 "강제복송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탈북주민이 북쪽으로 다시 귀환할지 대한민국에 남을지 의사를 확인해서, 정확히 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복송을 진행한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국제사회에선 당시 복송이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유엔에 보냈다"며 "당시 외교부 장관 보고나 결재도 없이 한국 외교부가 국제법에 대해 잘못 답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박** "경찰국 신설, 치안에 수사까지 경찰 통제 의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법계 의원은 경찰국 신설과 검찰인사 등 사법·행정 분야 '뜨거운 감자'부터 건드리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정장관을 향해 "치안사무뿐 아니라 수사도 간섭·통제하려는 것 아닌가. 일선 경찰의 수사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고 간섭·통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서장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했는데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맞지 않나"라며 "물리적 행사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미치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 박법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정수석실을 얹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장관 밑으로 가져와 장관, 검찰총장, 인사 등 1인3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박** "대통령실 사적채용 민망"…한총리 '별정직 채용 절차 밟았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도 화력을 집중했다.

박법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실 사적채용이 줄줄이 사랑이라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대통령실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채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 수행원'으로 동행한 신모씨와 관련해 "외교부장관의 결재를 통해 '기타수행원'으로 지정됐다고 대통령실이 해명했지만 정작 외교부장관은 어떤 명단에 그 사람이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이리 '사적채용' 관련 공세에 대해 한 총리는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 채용은 좀 다르다.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특수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 검증을 거쳐 채용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법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종섭 "탈북어민 복송때 판문점 통과, 유엔사가 승인"

유엔사 패싱 여권 주장과 배치 권영세도 "승인 받은 걸로 알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복송 사건 당시 북한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관련 질의

에 "유엔사가 (판문점을 통한 복송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장관의 답변은 탈북 어민을 복송할 당시 정부가 유엔사를 '패싱'했다고 해온 여권의 주장과 배치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 복송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한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판문점) 개문을 지시한 것이 팩트가 아닌가"라고 물기도 했다. 이 같은 질문에도 이 장관은 "유엔사의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승인하에 판문점을 통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역시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권 장관은 '2019년 당시 통일부가 (판문점을 통한 탈북어민 복송에 대한) 승인을 유엔사에 얻었는가'라는 하 의원의 물음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박지원·서훈·정의용·노영민... 文 정부 대북라인 4인 겨누는 검찰

실무진 소환해 기초조사

靑 의사결정 위법성 규명 주력

'탈북어민 강제복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윗선'을 향해 좁혀지고 있다.

당시 정부 의사 결정이 내부 매뉴얼 등을 따르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인사들

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지난주까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업무 처리 과정 전반 등을 파악했다.

2019년 11월 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복송 사건 수사는 당시 정부부가 제대로 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마치고도 전에 강제복송 방침을 세우고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급히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탈북민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통상 보름 이상 진행하는 합동조사를 단 3~4일 만에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서 전 원장의 조치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의심받는 '윗선'도 수사 대상이다. 북한인권단체가 고발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표적이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국정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복송 결정을 내린 곳이다.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수사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폭 둔화

리얼미터 조사...부정평가 63.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폭이 다소 둔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8~22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7명에게 묻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4%로 각각 나타났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0.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0.1%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30.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밖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월 4주차부터 7월 3주차까지 8주 연속 하락 또는 정체 현상을 보였다.

긍정 평가는 5월 3주차 진행된 취임 후 첫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52.1%를 기록한 뒤 5월 4주차 54.1%로 상승했다. 이후 6월 1주차부터 7월 3주차까지 진행된 8차례 조사에서 52.1%→33.3%의 흐름을 보였다.

권역별로 보면 지난주 대비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4.6%p ↑)와 대전·세종·충청(3.0%p ↑)에서 올랐고, 대구·경북(7.0%p ↓) 광주·전라(5.4%p ↓) 서울(2.0%p ↓) 등에서 내렸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하게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